

《코주부선생》부터 《공포의 외인구단》까지,
동지골 「만화촌」 시대 열렸다

만화는 세대와 시공간을 넘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문화 마당이다. 더욱이 세대와 세대를,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만화는 비주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도태되지 않고 있는 「문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950년대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우리나라 만화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화박물관이 그것이다. 용인의 등지골에 자리잡은 '등지만화박물관'엔 기억 속에서만 살아 있던 향수어린 만화책들이 실제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등지골이라는 지명처럼 아늑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등지만화박물관'은 지난해 11월에 개관하였다. 사재를 들여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는 자신이 만화가이기도 한 하고명 관장(64). 40여 년 동안 모은 자신의 소장 자료들을 고스란히 옮겨다 놓았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자료를 2년 전 용인으로 이사를 하면서 옮기다 보니 모두 트럭 9대 분이었다고 한다. "이사할 때마다 큰 짐이었죠. 전에 운영하던 출판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물에 젖기도 하고 보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워낙 수집벽이 많았던 하 관장은 처음엔 취미로 모으기 시작하였다. 갖고 싶은 책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어디든 찾아갔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과 맞바꾸는 물물교환(?)을 해서라도 기어이 소장하고야 말았다. 이쯤 되면 취미의 수준을 넘어선 듯. 하지만 그런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방대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다.

박물관은 3층 건물 중 1, 2층을 사용하고 있다. 1층에는 주로 1980년대 이후의 최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195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의 오래된 귀중한 만화책들을 볼 수 있다. 《이대통령 투쟁약사》, 국내 최초의 만화잡지 〈만화춘추〉 창간호를 비롯하여 김용환의 《코주부 선생》, 김종래의 《엄마찾아 삼만리》, 손의성의 《혁형사》,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 엄희자의 《스타지망생》, 허영만의 《내 철권을 보라》,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등 약 5만 여 권이 빼곡하다. 한눈에 보아도 지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책들이 대다수이다. 김용환 선생의 《코주부 선생》 같은 작품은 현재 한 권에 2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고서 대접을 받을 정도이다.

귀한 자료는 책만이 아니다. 작고한 작가들을 비롯하여 유명작가들의 육필원고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으로서 시가를 상정할 수 없는 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미국, 일본 등의 외국만화책들



과 캐리커처, 오리지널 포스터 등 다양한 만화관련 작품들이 상당수 전시되어 있다.

관객은 주로 가족 단위. 처음엔 아이가 줄라 억지로 발걸음을 한 부모들이 자신의 유년시절이 담긴 향수어린 만화책들을 보며 아이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저한테 사인을 받아가는 부모들도 있어요. 만화가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처음엔 무료로 개방하였다. 하지만 개관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진열대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만화책이 구겨지고 심지어 분실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잠시 문을 닫았다. 현재 진열대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마무리가 한창이다. 그리고 좀더 세밀하게 연도별, 작가별로 분류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래 설 수 없을 것 같다. 휴관중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고 싶다는 요청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 관장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교육관,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춰 종합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 만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또 후배 작가들과 힘을 합쳐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쓸 생각입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등지골 '만화촌' 시대가 멀지 않은 듯하다. **한**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하고명 관장은? 등지만화박물관 하고명 관장은 그 자신이 1960년대 활동하던 인기 만화가이다. 중학교 때부터 만화에 심취하여 1950년대 당시 만화방 출입문에 붙이는 표지를 그리기도 했다. 박기당 화백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1964년 데뷔한 후 'A급' 작가로 인기를 누렸다. 필명은 하청. 그는 《배짱 좋은 소년》, 《갈비전》, 《일류 멋쟁이》 등의 명랑만화들을 주로 발표해 왔고 현재도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현역 작가이다.

찾아가는 길 경부선 → 영동선 → 에버랜드 → 양지 톨게이트 → 죽산 방향 → 태영 CC → 등지골 등지만화박물관 | 문의 031. 339. 6373